

옛 전남도청 계엄군 집단발포 직전 영상 45년만 첫 공개

기록관, 문제성씨 영상기록물 공개
시신 2구 실은 손수레 등 장면 담겨
실종·희생자 규명 실질 단서 기대
계엄군 측 진술·진위 등 교차검증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발포 직전 상황을 촬영한 민간인의 영상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각 자료로, 5·18 진상규명의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27일 기록관에서 시사화를 열어 5·18 당시 광주의 모습을 촬영한 문제성씨의 영상기록물을 공개했다.

약 6분 분량의 8mm 필름 영상에는 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기인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정오 무렵까지 금남로에서 벌어진 시위대와 시민들의 모습, 계엄군과 대치, 상공을 순화하는 헬리콥터와 군용 수송기(C-123) 등이 담겼다.

또 5월 21일 화재가 난 광주MBC 방송국의 모습과 5월 23일 이후로 추정되는 태극기가 걸린 충장로 일대 및 시민들의 일상 장면도 포함됐다.

당시 충장로 1가에 직장을 둔 25세 청년 문제성씨는 금남로 카톨릭센터(현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앞 아치 구조물 위에서 고정된 구도로 촬영했는데, 시위대 중심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현장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포착했다.



문제성씨가 1980년 5월 21일 촬영한 영상 캡처본. 11시 20분께 리아카에 시신 2구가 실려 금남로 3가에서 47로 이동하고 있다(왼쪽). 10시 26분께 시민들이 도시형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대부분의 기존 영상은 도청 앞에서 시위대를 바라보는 계엄군의 시선에서 제작된 반면 이 영상은 시민 내부에서 바라본 장면을 담았다.

특히 시신 2구를 실은 손수레, 시민들이 몰고 온 장갑차, 군용 헬기와 수송기의 상공 비행, 가두방송, 시민들의 환호, 버스를 정리하는 장면 등은 당시 광주의 다층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단서들이다.

최루탄 연기 속에서도 시신을 지키며 버텼던 시민들, 부서진 차량을 스스로 정돈하며 돌파구를 마련한 장면 등은 당시 시민들의 분노와 결의, 자발적 연대를 강하게 증언하고 있다.

영상에는 계엄군에게 실탄이 분배됐을 것으로 보이는 시점, 장갑차에 캘리버50 기관총이

장착됐을 것으로 보이는 시각, 군용 헬기의 상공 배치와 계엄군 도열 등 당시 군 작전의 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장면들이 담겨 있다.

또한 영상 속에는 당시 구용상 광주시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시민들을 설득하려다 야유를 받고 내려오는 장면, 아세아자동차에서 시민들이 몰고 온 장갑차 등장, 최루탄 투척으로 무너지는 시위대 대열, 이를 피해 후진하는 장갑차, 시신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 등이 기록돼 있다.

기록관 측은 이번 공개된 영상이 타임라인이 명확히 유지된 상태로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 계엄군 측 진술의 진위나 영상 조작 의혹을 교차 검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의 신원 확인 가능성과 시신 수습 장면은 실종자·희생자 규명에 실질적 단서가 될 것으로 봤다.

문제성씨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계엄군이 광주시민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보고 집회 현장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회사에서 포상으로 받은 영사기와 구입한 캐논 카메라를 들고 겁도 없이 금남로에서 광주시민들의 행적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하던 중 80년 5월 광주를 촬영한 필름을 발견해 기록관에 기증하게 됐다”면서 “더 중요한 장면을 많이 촬영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호균 기록관장은 “이 영상은 5·18의 진실

과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살아 있는 증언”이라며 “당시 시민이 촬영한 현존 유일한 영상으로서 5·18 진상규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이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340초 분량의 영상에는 5월21일 계엄군의 집단발포 직전 광주시민 공동체 모습 등이 담겼다”며 “이는 오월의 진실을 찾는 소중한 조각으로, 오월을 함께해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기록관은 디지털 복원과 해제 작업을 거쳐 이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고 향후 교육, 전시, 연구, 홍보 등 다방면에 걸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여순사건 행불자, 국가보안법 재심 항소심 ‘무죄’

법원 구금돼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순사건 행방불명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

당시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중앙동 일원에서 열린 남조선노동당 인민대회에 참가하고, 지역별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48년 체포 이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하다.

가족들은 김씨가 광주교도소에 구금돼 한국전

쟁 시기 집단 총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체포와 구금은 불법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선고했던 여순사건 사례 중 처음으로 재심이 결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나온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환준 기자

‘금타 화재’ 주민 대피소 운영 종료

피해 접수 1만4천여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머물렀던 임시 대피소가 8일 만에 운영이 종료됐다.

27일 광산구에 따르면 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 마련된 2차 임시 대피소를 이용하던 주민들이 모두 귀가함에 따라 이날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 대피소가 설치된 지 8일 만이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 17일 오후부터 19일까지 광주여대 체육관에 1차 임시대피소를 마련한데 이어 지난 20일 하남다누리체육센터에 2차 임시대피소를 설치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대피소 누적 이용자는 1차 138세대 249명, 2차 50세대 87명 등 총 187세대 306명(중복 포함)이다.

대피소를 운영한 11일간 300여명의 광산구

공직자는 대피소 현장을 지키며 주민들에게 식사, 의료, 방역 등 지원을 제공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대피소를 떠난 주민은 공직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연기가 수일째 지속되면서 주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주민 피해 신고는 총 1만 4,035건이 접수됐다. 기관지 통증·두통·피부 발진 등 인적 피해는 8,474건, 분진 등으로 인한 물적 피해는 4,251건이다. 영업 보상 등을 요구하는 기타 신고는 1,280건에 달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임시대피소 운영은 금호타이어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근 주민의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다”며 “대피소 운영 종료 이후에도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조속히 일상 회복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운영봉 기자

대기오염물질 측정없이 배출한 환경사범 벌금형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배출한 업체 관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천수 부장판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9)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환경 기술자로 근무하면서 폼알데하이드, 에틸벤젠 등 물질을 배출량 측정 없이 공기 중으로 확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제품에 도료를 칠하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발암성이 높은 에틸벤젠을 그냥 배출했다.

최환준 기자

기사 제보 받습니다. 전남매일 독자와 함께 정직한 신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내실 곳 → jndnnews@naver.com



쌍촌동 (4층건물) 매매

상가 주택

월수익 520만

보증금 6천만

▶ 원가 급매

13억

9억8천만

장성토지 (담양)



① 장성 토지

장성담 5분, 1필지
토목완료, 즉시 건축 가능
(240평, 분할 가능)

② 담양 전원토지

창평중 5분 / 전기,수도 완비

상가 매매 (상무지구)

▶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

▶ 유흥기능 (룸,노래홀,홀덱)

▶ 6층 (전용 60평)

(보2천,월수익 250만)

시세 8억

급매 4억 (용3억3천)

법원 경매

★ 경매 관심 있는 분

★ 기초 부터 ~
실전까지

특수 전문
(유치권, 법지)

010-6670-9800

062-382-5500